

LG화학 ‘美 배터리 소송’ 유리한 고지

SK이노 “양사 소송 안기로 합의”
특허침해 訴 자체 무효 주장에
행정판사 “타당하지 않다” 심결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SK이노베이션을 ‘특허침해’로 제소한 사건에서 일차적으로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

“소송 대상 특허에 대해 소 제기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담당 판사가 판단한 것이다.

9일 ITC에 따르면 이 사건을 맡은 디로드(Dee Lord) 행정판사(ALJ)는 5일(현지 시각) LG화학의 부분 약식 심리의 결정(Partial Summary Determination·심결) 요청을 인용했다. 지난달 9일 LG화학이 로드 판사에게 SK이노베이션의 라이선스 항변(License Defense)이 타당하지 않다는 약식 심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소송 대상인 미국 SRS 특허가 한국 KR310 특허의 ‘부제소합의’ 범위에 포함됐기 때문에 권리 주장을 할 수

SK이노베이션 vs LG화학 ‘배터리 소송’ 일지

2019년	4월	LG화학, ITC·연방법원에 SK이노 ‘영업비밀 침해’ 소송
	5월	LG화학, 국내 경찰에 SK이노 산업기술 유출방지보허법 위반 혐의 고소
	6월	SK이노, 서울중앙지법에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9월	SK이노, ITC·연방법원에 LG화학 특허침해 소송
2020년	2월	ITC, 영업비밀 침해 소송서 SK이노 조기폐소 승인 예비심결
	8월	서울중앙지법, SK이노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12월	ITC,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판결 예정
2021년	7월	ITC, LG화학 제소 특허소송 최종판결 예정
	11월	ITC, SK이노 제소 특허소송 최종판결 예정



없다고 항변해왔다. 한마디로 더는 소송하지 않기로 한 내용으로 소송을 결었으니 소송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앞서 2014년 양사는 분리막 특허(KR 775,310)에 대해 앞으로 10년간 소송하지 않겠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지난해 LG화학은 ITC에 SK이노베이션을 ‘특허침해’ 혐의로 제소했고, SK이노베이션은 이 소송이 2014년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걸었다.

LG화학은 해당 내용은 한국 특허에만 한정될 뿐 해외 특허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또 이번 요청문에서 서울중앙지

법 관련 사건에 대해 LG화학의 승소 판결을 내린 사실도 언급했다.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 63-3민사부는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으며 소 취하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사실적 배경으로 실제적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등 반대 의견을 냈다.

결국에는 행정판사가 LG화학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사법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미국 특허정송실무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행정판사의 약식 심결은 예비 심결(Initial De-

termination)로 여겨진다. SK이노베이션이 ITC에 재검토를 신청할 때와 위원회 직권으로 다시 검토할 경우는 제외다.

SK이노베이션으로서는 전략적 카드 중 하나를 잃게 된 셈이다. LG화학이 소송에서 더 유리한 고지에 오른 모양새다. 다만, 이번 결정이 사건 자체에 대한 것은 아니므로 행정판사가 사건에 대해 어떤 심결을 내릴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아직 해당 소송 건에 대한 진행이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만큼 큰 변화는 없다”며 “향후 절차에서 소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기자 kimstar1215@

영업정지에 재승인 점수 미달 MBN ‘종합편성사업’ 퇴출 위기

중편 승인 과정에서 자본금을 불법 총당한 사실이 적발돼 6개월 영업정지(업무정지) 징계를 받은 MBN(매일방송)이 재승인 기준(650점)에 미달하는 평가 점수를 받아 퇴출을 걱정할 처지에 놓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30일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사업자 MBN과 JTBC의 재승인 심사 점수를 공개했다.

재승인 심사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을 중점 심사했다. 방송·미디어 등 총 5개 분야의 전문가 13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3박 4일(3-6일) 동안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 JTBC와 MBN은 총점 1000점 중 각각 714.89점과 640.50점을 획득했다. 점수로만 보면 JTBC는 재승인 요건을 충족했으나 MBN은 기준 점수 미만을 획득해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요건에 해당하게 됐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자본금을 불법 총당해 방송법을 위반한 MBN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및 이 기간 방송 전부를 중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다만 제작 협력 업체 보호와 고용 안정 등을 위해 6개월 동안 처분을 유예기로 했다.

내년 5월부터 편성과 광고 영업이 정지되는 것으로, 이때부터 반년간 ‘컬러바’ 같은 정치화면만 송출한다는 이야기다. MBN으로는 영업정지에 따른 손실을 피할 수 없어 경영 악화가 예상되고 채널 브랜드가 가진 이미지도 실추할 수밖에 없다.

MBN이 재승인을 받지 못하면 방송법에 따라 1년 이내 범위에서 방송을 계속할 수 있다. 방송 기간에 대한 판단 역시 심사위원회에서 내린다. 방통위는 이달 중 MBN에 대해 심사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과 개선계획 등을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를 통해 확인하고 이달 말 재승인 여부를 의결할 계획이다.

조남호 기자 spdran@

9월 세계 車 판매량 반등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에 지속 불투명”

美·유럽 등 주요시장 판매 개선
전년 대비 2% 늘어난 795만대

9월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지난해 대비 증가했다. 미국, 유럽 등 주요 시장 판매가 개선된 결과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등의 변수로 증가세가 지속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9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발

표에 따르면 9월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2% 늘어난 795만 대였다.

그간 코로나19 여파로 월 판매량은 △6월 -14.9% △7월 -4.8% △8월 -8.4% 등 전년 대비 감소세를 유지해왔지만, 9월 들어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미국과 유럽, 중국, 인도 등 주요 시장 판매가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다.

미국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하며 134만 대를 판매했

다. 역대 최저 수준의 금리 등 정부 경기 부양책과 대중교통 기피에 따른 수요 증가가 영향을 줬다.

유럽도 저공해차 인센티브, 지속적인 여행 제한, 코로나19로 지연된 대기수요 발현 등에 따라 7월에 이어 재차 판매가 증가했다.

다만, 10월부터 코로나19가 재확산함에 따라 지속적인 증가세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유럽은 프랑스와 영국, 벨기에

등이 이달부터 봉쇄령을 적용해 판매망이 폐쇄되는 만큼 신차 판매가 줄어들 전망이다. 독일,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체코에서는 판매망이 운영되지만, 소비 심리 위축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

미국도 여전히 높은 실업률, 소비심리 위축, 대선으로 인한 추가 부양책 지연 등으로 증가세 지속이 불확실하다.

KAMA는 이에 따라 9월과 10월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인 국산차 수출이 지속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최근 한국지엠(GM)의 부분파업, 기아차 노조의 파업 준비, 르노삼성 노사 간 교섭 지연 등으로 협력사의 유통성 위기 재확산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유창욱 기자 woogi@

지금은 마음의 손을 잡을 때

함께 손잡고 걷던
일상의 소중함을 이제서야 배웁니다

사회적 거리는 멀어졌지만
서로를 걱정하고 배려하는
국민 모두의 마음이 있기에
우리는 분명,
이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의 손을 맞잡은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11월 26일>

바이든, 정권 각료 인선 착수... 추수감사절께 윤곽

오바마정권 인사 대거 기용 전망 여성·소수 인종 참여 확대할 듯 진보·공화당 인사 등용 가능성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장관 인사 등 새로운 행정부 구상에 착수하는 등 차기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바이든은 자신의 정부에서 약 4000명의 자리를 채워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각료 인선은 이르면 오는 추수감사절(11월 26일) 즈음에 그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고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전망했다.

외교·안보 전문 컨설팅 업체 PTB글로벌어드바이저스의 폴 골드스타인 최고경영자(CEO)는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이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바이든 당선인은 국무부와 국방부, 재무부, 법무부 등 핵심 각료를 중심으로 인선을 진행할 것”이라며 “추수감사절 즈음에 차기 행정부 핵심 멤버를 공표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블룸버그는 바이든이 버락 오바마와 빌 클린턴 정권에서 요직을 맡았던 베테랑들을 대거 기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더 나아가 정치 분열을 막고 초당파적인 협력을 추구하기 위해 바이든이 민주당 내 좌파와 공화당 인사들을 등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여성·소수인종 참여 두드러질 듯 = 현재 바이든 정부에 입각할 후보로 거론되는 유력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여성과 소수인종 확대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바이든 당선인은 6월 USA투데이에 기고한 칼럼에서 “교실에서 법원, 내각에 이르기까지 리더십과 기관 구성원들은 실제

미국의 모습과 같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무장관 1순위로 거론되는 레이철 브레이너드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는 백인 여성이다. 국무장관 물망에 오른 수전 라이스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흑인 여성이다. 오바마 정권에서 국방부 정책차관을 지낸 미셸 플라노이는 여성 국방장관으로 유력하다.

플라노이 외에도 국방장관 후보로 오바마 정부 시절 국토안보부 장관을 지낸 흑인 제프 존슨과 두 다리를 잃은 여성 참전 용사이면서 태국계인 태미 덕워스 상원의원도 거론되고 있다.

2017년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반기를 들었던 샬리 에이츠 전 법무장관 대행은 신임 법무장관 후보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다.

이 전망대로라면 미국 최초 여성·흑인·아시아계 부통령인 카말라 해리스와 함께 주요 직책을 여성과 소수인종이 채우게 되는 셈이다.

◇경제·외교 수장은? = 바이든 행정부 각료 인사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이 경제와 외교 분야다. 새로운 경제 팀은 신종 코로

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 허덕이는 미국 경제를 회복시켜야 한다. 외교 부문은 대중국 관계 설정과 동맹국과의 연대 회복 등 난제가 산적했다.

블룸버그는 경제정책 사령탑인 재무장관 후보로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 외에도 오바마 정권에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이사를 지낸 제프 제인츠, 실비아 매튜스 버웰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새러 블룸 러스킨 전 연준 이사를 꼽았다. 이들 모두 풍부한 실무 경험이 강점이다.

민주당 경선 당시 바이든의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재무장관직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노동부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바이든은 상원에서 의원직을 최대한 유지시키는 것이 시급해 두 사람을 입각시키긴 어렵다는 평가다.

외교 수장으로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심복으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을 지낸 라이스와 바이든의 오랜 측근이자 친구인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 국무부 부장관 이력의 토니 블링컨이 물망에 올랐다.
배준호 기자 baejh94@

문 대통령 “바이든과 다방면 소통... 평화프로세스 공백 없을 것”

“경험 바탕으로 비핵화 진전”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하를 건네면서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우리 국민과 함께 축하를 보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새로운 행정부를 준비하는 바이든 당선인 및 주요 인사들과 다방면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호칭을 처음 사용했다.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는

정상 간의 굳건한 우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잘 협력해 왔다”며 “미국 민주당 정부는 한국의 민주당 정부와 평화프로세스를 긴밀히 공조하고 협력해온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축적된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날을 교훈 삼으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더 큰 진전을 이루도록 지혜를 모아나갈 것”이라며 “특히 한미 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에 어떠한 공백도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북미 간 대화와 북핵 문제에 관해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른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

된다. 특히 양국 민주당 정부 간의 ‘경험’을 언급한 것은 바이든 당선인이 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 정부 전반기의 대북 정책을 상기하려는 뜻으로 읽힌다. 또 ‘지난날의 교훈’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집권 초기 유화책에 가까웠던 대북 정책이 북한의 도발이 이어진 뒤 ‘전략적 인내’로 돌아섰던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오바마는 집권 후 “북한 지도자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고, 한반도 문제를 ‘평화프로세스’로 다루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당시 오바마 정부 한반도 전략의 핵심은 ‘협상에 의한 비핵화 관리’였던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도발 등을 멈추지 않자 ‘전략적 인

내’가 시작됐고, ‘한국 패스’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한반도 문제를 사실상 방치하는 방향으로 돌아섰다.

이런 전례를 볼 때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미국을 자극하지 말라”는 대북 메시지로도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에서도 새로운 기회와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 대목은 북한의 태도에 따라 바이든 정부에 대북제재 완화 등을 제안할 수 있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한미 간 튼튼한 공조와 함께 남과 북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한 부분도 남북미 3자 간 소통과 협력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 의미를 담은 것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도 “내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여는 등 트럼프 정부와 마지막까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 문제를 언급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일환 기자 whan@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우리 아이들의
마음 속에
하늘색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초미세먼지 나쁨
1년 70일 이상

아동은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문제에 가장 취약

아이들이 파란 하늘 아래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앞장섭니다.
함께 해주세요!

“트럼프 자극 마라”... 남은 두달 ‘마지막 몽니’ 주의보

바이든 인수위 방해할 ‘비난·행정조치’ 막을 수 없어 중국 “가장 불안정한 시기”... 이란도 최대 압박 우려

조 바이든이 11·3 미국 대선에서 승리했지만, ‘트럼프 리스크’는 아직 유효하다. 대선 불복 문제뿐만 아니라. 선거에서는 졌어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새 대통령 취임 시까지 남은 임기를 이어간다. 남은 두 달간의 임기가 바이든 당선인의 통치를 더욱 어렵게 만들기 위한 비난과 행정조치, 기타 노력 등으로 소용돌이칠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역대 미국 대통령 대부분이 임기 만료 시점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려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만큼 대통령직과 연방정부의 제도를 우습게 본 사람도 없었다. 내년 1월 20일 퇴임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적으로 간주된 인물들은 해임되거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또 완전히 새로운 규칙 제정으로 대통령 권한의 전통적인 법적 한계가 왜곡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우스웨스턴대학의 에밀리 시드너 정치학 교수는 “대통령의 레임덕(lame duck·권력 누수)이 시작되면 행정 권한의 행사 능력에 대한 억제제가 작용하기 어려워진다”며 “다시 유권자와 마주하게 될 일이 없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동을 거는 것은 대통령에게 어울리는 행동의 전통인데, 이번 정권에서는 지금까지 그것이 거의 효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몽니’에 떠는 것은 미국 내부뿐

만이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줄곧 척을 진 중국과 이란 등도 ‘마지막 분노’가 몰아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의 후시진 편집장은 “트럼프를 자극하지 마라”, “패배의 분노가 중국을 향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중국은 바이든 정권의 출범을 내심 반기는 입장이다. 바이든 정권 역시 대중 강경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어느 정도의 압박은 각오해야겠지만, 적어도 트럼프 행정부의 파격적이고 예측불허한 외교 관계에서만큼은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되레 바이든의 향후 4년보다는 트럼프의 남은 2개월이 더 우려될 판이다. 중국에서 정부 차원의 메시지를 내놓거나, 관영 매체들이 뚜렷한 관점 없이 바이든의 당선 소식을 전하고 있는 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인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의 ‘비공식 입’으로 불리는 후시진 편집장은 “바이든 당선인의 대중 정책이 누그러질지 아니면 조정될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지만, 적어도 트럼프 후기의 대중 정책 중 일부는 제거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어 “무슨 일이 있든지 가장 불확실한 요소들로 인해 미국이 가장 불안정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중국은 만일의 사태에 대응해야 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가 미·중 관계에 영향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연설하는 가운데 ‘출구’ 팻말이 보인다.

워싱턴/AP뉴스

미치지 않기 위해 그를 개인적으로 자극하는 일을 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란도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피하고 싶은 나라로 꼽힌다. 이미 미국 언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잔여 임기 동안 이란에 대해 ‘최대 압박’의 고삐를 풀 것이라

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약시 오스는 이날 2명의 이스라엘 소식통을 인용해 “내년 1월 20일 물러날 트럼프 행정부가 남은 기간 새로운 대(對)이란 제재를 연속적으로 가하는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도 미국과

이란의 관계는 불투명하다. 바이든 당선인은 자신이 대통령이 될 경우 파리기후변화 협약 등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한 국제 합의에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공약했지만 이란 핵 합의 복구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언급한 바가 없다. 변효선 기자 hsbun@

멜라니아 ‘트럼프 설득’ 총대 메나

黨 물론 가족도 불복 놓고 균열 아들 “버티자”...부인·딸은 “승복” 측근들 “멜라니아, 임기 후 이혼”

대선 결과 승복을 거부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립무원이다. 공화당과 백악관 내에서 트럼프를 옹호하는 주장과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영부인인 멜라니아 여사마저 승복을 설득하는 쪽으로 입장을 굳혔다고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째 골프장을 찾았다.

NYT에 따르면 공화당은 트럼프의 선거 결과 불복을 놓고 돌로 쪼개졌다. 공화당 중진인 및 롬니 상원의원은 “어떤 이유에서건 뒤집힐 만한 무언가가 나오지 않는 한 새로운 대통령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대선 승복을 촉구했다. 반면 트럼프의 최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승복하지 말고 힘껏 싸우라”고 응원했다.

부통령인 마이크 펜스는 대선 막바지부터 그 어디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가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건 선거당일(3일)이 마지막이었다. 일각에서는 그가 침몰하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탈출하기 위해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고 분석한다.

본업이 사업가인 트럼프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 그만이지만, 공화당 입장에서는 지지자들의 눈치도 봐야 하는 데다 앞으로도 계속 당을 이끌어 가야 하는 만큼 트럼프의 진흥당 싸움에 휘말리는 건 부담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백악관은 물론 트럼프 집안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기는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 트럼프는 아버지가 계속 싸워야 하며, 공화당이 함께 소송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선거를 도둑맞았다. 결과를 뒤집기 위해 싸우겠다”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반면 멜라니아 여사와 장녀 이방카, 만사위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은 선거에 승복해야 한다는 쪽이다.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과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고 있다. 다만 제이슨 밀러 트럼프 대선 캠프 대변인은 “쿠슈너가 선거 승복을 지지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거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법적 구제책 사용을 권고했다”고 의혹 진화에 나섰다.

이 와중에 영국 데일리메일은 멜라니아 여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결혼 생활이 사실상 끝나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과 아내를 모두 잃을 수 있다고 전했다. 멜라니아 여사의 전 측근이자 사생활 폭로 책을 써낸 스테파니 윈스턴 울코프는 “두 사람이 백악관에서 줄곧 각방을 써왔고, 계약 결혼을 이어왔다”며 “2016년 대선 때도 멜라니아 여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멜라니아 여사는 남편의 당선 소식에 눈물을 흘렸다”고도 했다.

오마로사 매니골드 뉴먼 전 백악관 보좌관 역시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 부부의 결혼생활은 끝난 것과 마찬가지”라며 “멜라니아 여사는 백악관에서 떠날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폭로했다. 멜라니아 여사는 이혼을 원하고 있지만, 임기 도중 이혼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굴욕감에 보복할 위험이 있어 임기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최혜림 기자 rog@

스마트하게 돈버는 지갑, 시럽웰스

SK 멤버십 SK 증권 membership Wealth

시럽웰스는 시럽웰스 안에서 손쉽게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생활금융 멤버십입니다.

고객행복센터 1599-8245

- * 1999년 11월 10일 공표된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된 정보이며, 투자에 따른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 공표된 정보는 투자에 대한 권고나 권유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 * 공표된 정보는 투자에 대한 권고나 권유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며, 투자에 따른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 본사의 영업시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 본사의 영업시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 본사의 영업시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 본사의 영업시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 본사의 영업시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 걷힌 증시 ‘우상향’... 연말 랠리 가능성 고조

바이든노믹스·원화강세 등 기대
9일 코스피 2447.2로 마감

바이든 ‘친환경 투자’ 강조
‘바이오·전기차 관련주 등 유망’



9일 코스피 지수가 1.27% 올라 연고점을 경신했다.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가전 거래일보다 30.7포인트 오른 2447.2를 가리키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코스피가 2450선에 바짝 다가섰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자 한국 증시에 대한 상승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리스크가 남아있지만, 2조 달러가 넘는 추가 경기부양책 등 '바이든노믹스(Bidenomics·바이든 경제정책)', 원화 강세(외국인 매수 확대 요인) 등 국내 주식시장에 호조적 여건이 형성된 덕분이다. 국내 증권사 전문가들은 "국내 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새로운 상승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이든 훈풍, 연말 증시 '파상상' 갈까** =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0.70포인트 오른 2447.20으로 거래를 마쳤다. 대선이 치러진 2일부터 6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날 지수는 2018년 6월 12일(2468.83) 이후 약 29개월 만에 최고치다. 또 지난 9월 15일(2443.58)의 연고점도 넘어섰다.

중국의 상하이 종합지수(1.86%), 선전 종합지수(2.25%), 일본 증시의 닛케이 225 지수(2.12%), 토픽스(1.41%) 등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상승했다.

김형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누가 되느냐의 결과보다는 선거 이벤트가 종료되면서 정책지원 혼선이 제거돼 (추가로) 갈 수 있다는 기대를 주식시장이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경수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도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정점은 통과했고 남아 있는 불확실성 영향력도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이미 증시가 상승한 것이 이를 반영하는데 자본시장 입장에서 불확실성은 점점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달러 약세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사자'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금

융감독원에 따르면 외국인은 10월 한 달간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620억 원, 코스닥시장에서 2960억 원을 각각 순매수했다.

당분간은 달러 약세 기류가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미국의 경기부양책이 본격화하며, 이미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에 달러 공급이 더 늘어나게 된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달러 약세는 중장기적인 것으로 전망한다"며 "달러 약세는 수출 기업들의 수익성을 악화하지만, 외국인 자금이 국내 주식 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는 미국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 확대 욕구를 키울 것이라는 풀이다.

특히 수출국이 주 수입원인 우리나라로서는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교역 여건이 개선되면서 증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계속되더라도 바이든 후보는 동맹국과의 협력을 중시할 것으로 예상해 트럼프 정부하에서의 관세 전쟁 등 갈등은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주에 주목** = 전문가들은 바이든 당선인이 강조하는 '친환경 투자' 관련 종목을 유망하게 봤다. 바이든의 공약은 신재생에너지·전기차 등 그

린뉴딜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오바마케어 유지 확대 의견도 갖고 있어 헬스케어 업종도 수혜주로 거론된다. 바이든 후보는 대선 공약으로 2조 달러 규모의 친환경 인프라 투자를 발표했다.

최석원 SK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결국 엔 사업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가 관건이고 산업이 커가는 과정에서 국내 기업이 밸류 체인에서 어느 위상을 차지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 바이오는 관망을 가능성이 크고 우리나라 기업 경쟁력도 관망은 만큼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을 자세히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트럼프의 불복 가능성이다. 가능성이 작아졌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이다.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공화당이 재정정책에 대해 민주당과 방향이 비슷하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최악은 아니고, 주식시장은 이미 먼저 움직이니 바이든 공약으로 갈 것 같다"면서 "서확개 미들도 이 관점으로 가야 한다. 예를 들면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규제 정책 때문에 막힐 수도 있지만, 마냥 막을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바이든 시대’에 베팅하는 시장

한 달간 북미주식형 펀드에 1070억 몰려

1070억 원. 최근 한 달간 북미 주식형 펀드에 유입된 자금이다. 같은 기간 중국, 일본, 인도, 베트남 등 주요 국가 펀드에서 돈이 빠져나간 것과 대비된다.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바이든노믹스'에 대한 기대감 때문으로 해석된다.

주요 해외주식형 펀드 현황

(단위: 억 원, 11월 6일 기준)

유형	펀드수(개)	설정액	1개월
북미주식	50	1조6562	1070
중국주식	181	5조1539	-296
일본주식	41	2137	-24
인도주식	24	4630	-162
베트남주식	22	1조4805	-263

※ 출처: 에프앤가이드

9일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1개월간 북미주식펀드에는 1070억 원의 자금이 순유입됐다. 이 중 절반에 달하는 424억 원이 최근 1주일 새 들어왔고, 대선 직후인 지난 5, 6일 각각 214억 원, 59억 원이 몰렸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된 가운데 같은 기간 국가별 펀드 가운데 1000억 원 이상의 자금이 순유입된 펀드는 북미펀드가 유일하다. 같은 기간 중국펀드에서는 296억 원이 빠져나갔다. 일본(-24억 원), 인도(-162억 원), 베트남(-263억 원) 펀드 등에서도 자금이 유출됐다.

연초 이후로 범위를 넓히면 북미 펀드에 유입된 설정액은 총 7728억 원에 육박한다.

북미 펀드는 수익률도 양호한 편이다. 최근 미국 증시가 2월 말 이후 펼쳐진 폭락장의 낙폭을 어느 정도 회복하면서 지난 1개월간 북미펀드는 3.24%의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이는 전체 글로벌 주식펀드(2.06%)를 웃도는 성과다. 특히 러시아(-0.67%), 브라질(1.69%), 인도(0.16%) 등 신흥국은 물론 일본(0.66%), 유럽(-1.59%) 등 선진국 시장과 비교해도 양호한 성과다.

북미 주식형펀드는 3개월(3.74%), 6개월(21.43%), 1년

(20.33%) 등 전 구간에서 플러스(+) 수익률을 내고 있다.

문종진 교보증권 연구원은 "불확실성이 빠르게 감소하면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나스닥 등 주요 지수가 모두 급등했다"며 "이는 리스크-온(위험자산 선호)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바이든 수혜 산업으로 꼽히는 친환경 섹터에도 시장 이목이 쏠린다. 실제 천연가스 등이 포함된 천연자원펀드(총 28개)는 일주일 새 1938억 원의 투자금이 몰렸다. 같은 기간 녹색성장펀드(총 21개) 역시 64억 원이 유입되면서 '바이든 시대'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익률도 시장 기대감을 반영하는 분위기다. 천연자원펀드 수익률은 지난 6개월간 43.09%로 강세를 보였지만 최근 3개월 기준 -8.03%를 기록하면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대선 이후인 6일 수익률은 1.83%를 나타내면서 최근 1주일 새 수익률(4.09%)은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선증권 장기전략리서치부는 "대선 후 미국 시장은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시니어 품격을 위한 공감 매거진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11월호 발매

COVERSTORY Feel환경 시대 必환경 생활

PART1. 숫자로 읽는 기후 위기 지구가 보내는 SOS
PART2. 알쏭달쏭 환경용어키워드로 보는 환경 이슈
PART3. 친환경 오답노트 제대로 해야 제대로 지구를 살린다
PART4. 새활용 아이디어 김사미클로 업그레이드, 일상의 미학
PART5. 건강한 한 끼 100점짜리 건강을 위한 일
PART6. 차세대 친환경 먹거리 친환경을 일면 경제가 보인다

더불어 숲 어디서든 휘둘리지 않으면 기기가 도술선

고수 열전 '사건의 시작은 귀농 반대투쟁이었지만' 시골에서 만리이나 편선을 운명하는 이가 있지만 순항하는 사례가 드물다. 이를 모르지 않았던 이청형 화양산토양연구소 대표 역시 심오한 고민에 빠졌다. 그러나 기어오 편선을 짓겠다고 기세를 문우연 남편이 결국 일을 내고야 말았다. 그녀는 실의와 불만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오영, 이게 웬일? 편선 사업이 색 손조롭게 돌아가는 게 아닌가.

심심오오 50+ 커뮤니티 이웃부터 환경까지, 우리를 잇는 한 뼘

지무리 천도 총총하게 이으면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한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그렇게 한 뼘 한 뼘 바느질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버려진 공간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사랑한뼘' 커뮤니티다.

엄마가 엄마에게 심혈관 질환과 치매 예방에 좋은 등푸른생선 레시피

영사 명작 돌아보기 얼골 없는 거리의 화가, 땀크서 "15억 원짜리 그림이 잘려나간 사연"

정기구독 신청 Tel. 02-799-2680 Fax. 02-799-6700 1권: 1만원 / 1년 구독: 10만원 독자 의견 접수 및 제보 (02)799-6713~7 이메일 bravo@etoday.co.kr

I·SEOUL U
너와 나의 서울

서울특별시

어김없이 찾아오는
겨울철 미세먼지
우리가 행동하면
줄일 수 있습니다

서울의 맑은 하늘
함께 만들어 갑시다

12월~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서울 전역 운행 제한
- ☑ 배출사업장·건설공사장 집중 관리
- ☑ 에코마일리지·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 ☑ 주요 도로 청소 강화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문의 ☎120

與 ‘판사’ vs 野 ‘검사’... 공수처장 후보 10여명 추천

추미애·조재연 추천 명단 비공개
13일 2차 회의서 후보 심의 거쳐
최종 후보자 2명 대통령에 추천

3년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이끌 초대 공수처장 후보에 10여 명의 법조인이 추천됐다. 여당과 야당 추천이 판사와 검사 출신으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측 추천위원인 박경준 변호사와 김종철 연세대학교 교수는 9일 공수처장 후보로 전종민(53·사법연수원 24기)·권동주(52·27기) 변호사를 추천했

다. 여당 측 추천위원들은 애초 3~4명을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거절하는 대상자가 나와 최종적으로 2명을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8년 판사로 임관, 의정부지법과 서울 행정법원 판사 등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전 변호사는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소추위원 대리인단에 포함된 바 있다. 권 변호사는 고려대 법대를 나와 2000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판사, 청주지법 총주지원장 등을 지냈다. 현

재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다. 야당 추천 위원인 이현, 임정혁 변호사는 후보로 강찬우 변호사, 김경수 전 고검장, 석동현 변호사, 손기호 변호사 등 4명을 추천했다.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은 2013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사라지기 전 마지막 중수 부장을 지낸 바 있다. 강찬우·석동현 변호사도 검사장 출신이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견리 국민권의위원회 부위원장, 한명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등 3명을 추천했다. 김진욱 선임연구관은 판사, 이견리 부위

원장과 한명관 변호사는 각각 검사 출신이다. 특히 이 부위원장은 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장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도 소수를 추천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수처장 추천위는 오는 13일 2차 회의를 열어 후보군을 심의하게 된다. 공수처장 추천위 7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한 최종 후보 2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게 된다. 여야는 이날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 날 선 공방을 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청문회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이번 주 회의에서는 끝장토론을 해서라도 결론을 내야 한다”며 “그래야 11월 중에 청문회가 가능해진다”고 촉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될 사람이 돼야 하는데 민주당이 왜 저렇게 성급한지 모르겠다”며 “검증을 해보고 동의할지 말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지, 우격다짐으로 11월 안에 (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자기들이 추천한 사람을 눈감고 동의하라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김종용 기자 deep@



이낙연(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4·7재보선기획단 회의에서 머리를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가장 도덕적·유능한 후보 낼 것”

4·7 재보선 기획단 첫 회의
“서울·부산 매력적 비전 제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서울과 부산의 매력적인 미래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4·7 재보선 선거기획단 1차 회의에서 “선거기획단 단계부터 과거의 틀을 뛰어넘는 새로운 기획과 활동을 선보이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저는 두 선거에 당이 임하기로 하면서 사과와 함께 당의 확실한 자기성찰을 약속했다”면서 “오늘 발족에 앞서 ‘더 낮게, 더 책임 있게, 시민과 함께’를 다짐하는 것도 저희 성찰의 자세를 시민들께 다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가장 도덕적이고 유능한 후보를 내세워달라”고 기획단에 당부했다. 그는 “선거기획단 활동 과정에서부터 세계 최고 스마트 정당을 내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4·7 재보선 선거기획단 1차 회의에서 “선거기획단 단계부터 과거의 틀을 뛰어넘는 새로운 기획과 활동을 선보이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저는 두 선거에 당이 임하기로 하면서 사과와 함께 당의 확실한 자기성찰을 약속했다”면서 “오늘 발족에 앞서 ‘더 낮게, 더 책임 있게, 시민과 함께’를 다짐하는 것도 저희 성찰의 자세를 시민들께 다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가장 도덕적이고 유능한 후보를 내세워달라”고 기획단에 당부했다. 그는 “선거기획단 활동 과정에서부터 세계 최고 스마트 정당을 내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총선 기획단도 이날 오후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주제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공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서울·부산 재보선 후보 공천에 기존의 규칙을 그대로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경선 규칙은 ‘권리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 50%’ 합산 방식으로 후보 공천을 결정했다. 다만, 가·감산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따라 후보 간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다. 현재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현역 국회의원이 임기 4분의 3을 채우지 못하고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25% 감산’ 조항이 삭제됐다. 현직 의원의 불리한 조건이 사라진 것이다. 또 여성 후보자의 경우 가산을 받는다. 전·현직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역위원장인 여성 후보자는 ‘10% 가산’을 받고,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여성 후보자는 ‘25% 가산’을 적용받는다. 민주당 내에서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우상호·박용진·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언급된다. 부산시장 후보군으로는 박재호·전재수·최인호 민주당 의원과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이 거론된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안철수 ‘야권 재편론’에... 김종인 “관심 없다”

국민의당 “뜻 맞는 의원과 논의”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 내에서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야권 재편 및 혁신’을 주장하고 있지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시종일관 “관심 없다”는 입장이다.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돼서 이번 주에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안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주 야권 전체의 혁신 플랫폼을 제안한 것은 더 이상 이대로는 야권의 장래도, 대한민국의 장래도 없다는 고심 끝에 내린 결론 때문”이라며 “단순히 반문연대, 반민주당연대가 아니라 대한민국 변화와 혁신의 비전을 생산하고 실현할 수 있는 개혁연대, 미래연대, 국민연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후 안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서도 “범야권의 공동 노력 없이는 정권 견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절박감 때문에 혁신 플랫폼을 말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안 대표는 6일 권 원내대표와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주도하는 연구모임 국민미래포럼 강연에서도 “제1야당을 포

함한 야권에 대한 비호감이 너무 크다”며 야권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유일한 대안으로 ‘새로운 혁신 플랫폼 구축’을 처음 제안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연일 무관심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안 대표의 야권 재편론에 대해 “우리 당이 외부 정치인 말 한마디에 휩쓸릴 정당 아니다”며 “안 대표 얘기에 대한 동조 여부를 떠나 관심 없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전날 중진의원들과의 만찬 직후에도 안 대표의 신당 창당 언급에 대해 “관심도 없고, 혼자 하면 하는 것이고, 그걸 어떻게 막나. 자기 혼자 할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하기도 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면’ 요구에 정부 신중

“사실상 대기업 혜택”

신중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라 면세점 업계가 고사 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국회를 중심으로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특허권 부여의 반대급부로서 면세점 수익의 사회 환원 등을 고려해 설계됐고 사실상 대기업에 대한 지원이라 신중한 모습이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면세점 매출은 올해 2월 전년 같은 달보다 36.4% 감소한 이후 9월에도 34.9% 줄었다. 면세점 매출이 8개월 연속 하락한 것은 2010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역대 최장이다. 이처럼 면세점 업계의 불황이 이어지자 지난 7월 중견 면세사업자인 SM면세점은 더는 버티지 못하고 인천국제공항 영업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현대백화점 면세점은 올해 3분기까지 118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에 다양한 지원책이 검토되는 가운데 특허수수료의 한시적 감면 방안이 국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허수수료는 국가가 면세점에 독점적 법적 지위를 보장해 주는 만큼 수수료를 통해 행정·관리 비용과 이익분을 환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된다. 특허수수료는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1000분의 1에서 100분의 1까지 수수료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으로 정한다. 지난해의 경우 주요 면세업체는 특허수수료로 700여억 원을 냈다. 여야는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에서 특허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줄 수 있는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재난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본 경우 특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역시 “면세산업은 대규모 수출·유통산업으로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국가산업인 만큼 지속해서 발전시켜야 한다”며 같은 취지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특허수수료가 특허권 부여의 반대급부로서 면세점 수익의 사회 환원 등을 고려해 설계된 점, 대기업에 대한 혜택 집중, 지난해 관세법 개정으로 실질적인 수수료 인하 요인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수수료 감면은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광군제 특수 잡아라”... ‘K농산물’ 中 알리바바 ‘티몰’ 입성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 축제인 광군제를 맞아 ‘K-농산물’의 진출 발판이 마련됐다. 정부는 200만 명을 대상으로 할인쿠폰을 지원하는 등 본격적인 온라인 마케팅을 추진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1일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알리바바의 티몰(T-Mall)에 ‘한국식품, 국가관’을 개설하고, 본격적으로 농식품 기업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티몰은 중국 내 1위 B2C 플랫폼으로

사용자는 8억 명 이상이다. 지난해 매출액은 544조 원에 이른다. 티몰에서 한국 식품 전체 매출액은 지난해 805억 원에서 올해 8월까지 1340억 원으로 66.4%가 성장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수입 규모가 지난 5년간 31%의 높은 성장세에 있는 중국 시장에 한국식품 국가관을 개설함으로써 중소 수출 업체들이 보다 쉽게 진출할 수 있는 온라인 수출 환경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티몰 한국식품 국가관 개설을 계기로

정부는 국내 중소·중견 기업들의 수출을 더욱 가속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 먼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중국에서 한국식품보관창고 및 냉장운송을 지원하고 있는 aT 칭다오물류센터에 소포장 배송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국가 브랜드를 활용해 중국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임점 품목 관리와 공동마케팅도 추진한다. 특히 11월 개최하는 중국 대표 온라인 쇼핑 축제 광군제 특수에 집중한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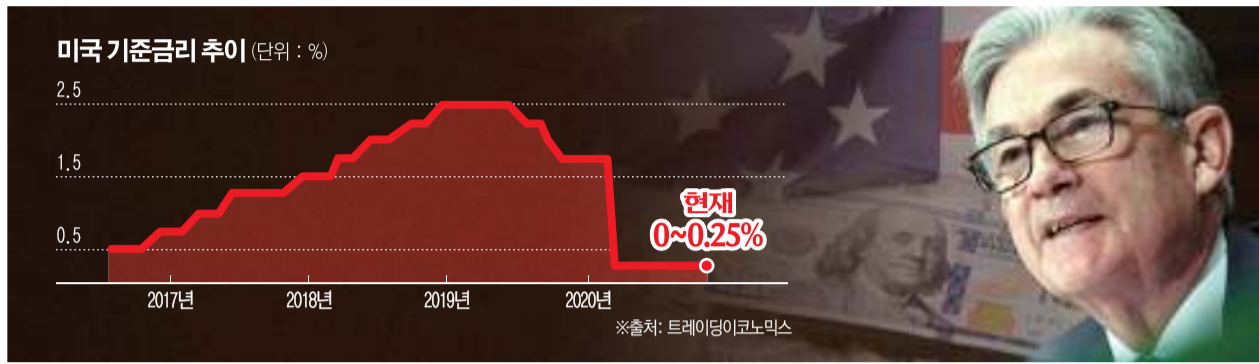
‘잘가라 트럼프!’... 속으로 웃는 파월

바이든 당선... 연준 독립성 존중 파월 임기연장-정부 재정확대 기대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조 바이든의 당선 소식이 세계 금융시장의 시선이 제롬 파월(사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파월 의장은 취임 이후 금융정책을 놓고 줄곧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며 갈등을 일으켰던 장본인으로,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낙마로 2022년 만료되는 그의 임기도 연장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파월 의장은 2017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으로 임명된, ‘트럼프의 사람’이었다. 하지만, 취임 이후 파월 의장의 금융정책이 ‘저금리와 약달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맛을 거스르면서 둘 사이의 불화는 극에 달했다.

트럼프의 파월 경질설이 끊이지 않았고, 급기야 지난해 8월 뉴욕 증시가 급락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멍청한 파월’이란 표현까지 쓰면서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당시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증시 급락의 원인을 미·중 무역분쟁이 아닌 연준의 고금리 정책으로 돌리려 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연준은 지난해 이례적으로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정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미국 경제를 침체로 몰아넣는 지금은 대응 여지가 녹록지 않다.

이에 파월 의장은 지속적인 금리 인하는 가질 부작용도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재정지출 확대를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열린 정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도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며 “최소 약간이라도 재정 지원을 얻을 수 있다면 더 강한 회복이 이뤄질 것”이라며 “추가 부양이 필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NYT)는 8일(현지시간) “파월 의장이 연준이 가진

(시장 안정) 카드가 한계에 부딪혔다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의회로 하여금 직접적인 자금 조달 결정을 요청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파월의 이러한 태도는 바이든 당선인의 경제 정책과도 상당 부분 맞물려 있다. 감세 강화와 규제 완화 정책을 표방하던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당선인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규모 재정 지출과 조세 정책 및 대기업 규제 강화를 선호하는 ‘큰 정부’적 입장이다.

재생에너지와 공공 인프라 투자에 4년간 2조 달러(약 2228조6000억 원)를 약속하는 등 사회보장 혜택까지 전부 합치면 10년간 10조 달러 규모로 추산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바이든의 세출

규모는 1930년 대공황 당시 나온 ‘뉴딜 정책’ 이후 최대”라고 평가했다. 파월 의장이 요청하던 정부의 모습인 셈이다.

네이션 시츠 전 연준 이코노미스트는 “바이든의 당선은 2022년 초에 만료되는 파월 의장의 임기를 4년 더 늘릴 것”이라며 “연준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대통령은 내년 1월에 바뀔 예정이지만 올해 금융 시장을 이끌었던 두 강력한 세력인 연준(의 정책)과 코로나19는 유지될 것”이라며 “미국 정부는 금리를 낮게 유지하고 매달 수십억 달러의 채권을 매입하면서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는 공약을 지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알리바바 ‘싱글데이’ 코로나로 ‘더블데이’

“경기회복 응원” 광군제 두 차례 개최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쇼핑 축제 ‘싱글데이(광군제)’가 올해는 ‘더블데이’가 됐다. 알리바바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억눌렸던 소비가 폭발하는 ‘보복 소비’에 부응하고, 경기 침체에 허덕여온 전 세계 상인과 기업들을 응원하는 차원에서 행사 규모를 예년보다 두 배로 확대했다고 포춘이 최근 보도했다.

알리바바 온라인 장터인 타오바오와 티몰의 장관 사장은 “올해 축제는 ‘싱글’에서 ‘더블’로 확대돼 상인들이 중국 전역에서 자신의 제품을 두 배로 홍보하고 판매할 기회를 갖게 됐다”며 “이를 통해 우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인들에게 소비자와 소통하고 전반적으로 더 나은 소비자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알리바바의 의도는 적중한 것으로 보인다. 신규 브랜드와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춘 1차 행사는 1~3일 진행됐는데 공식적으로 판매가 진행된 지 11분 만에 14억9000만 달러(약 1조7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쓰촨성 청두에 있는 고객에게 이벤트 시작 후 11분도 안 돼 첫 번째 배송이 이뤄졌다.

광군제는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추수감사절 다음 날 금요일)’와 아마존닷컴의 ‘프라임데이’를 뛰어넘는 세계 최대 쇼핑축제로 자리매김했다. 마케팅도 ‘11’을 중심으로 펼치고 있다. 다만 올해 광군제 1차 행사는 지난해 광군제 당시 시작 1분 만에 10억 달러 매출을 기록했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기세가 약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경제는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 괄목할만한 회복세를 보였지만, 이는 수출 회복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부 지출에서 비롯된 것으로, 아직 소비 심리가 완전히 회복하지는 않았다고 포춘은 설명했다. 중국 소매판매는 8월에야 전년 동월 대비 0.5% 늘어나며 증가세로 돌아섰고 9월 증가율도 3.3%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던 예년에 비하면 약하다.

포춘은 11일 진행되는 2차 행사는 중국 소비회복을 가능할 기회를 다시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알리바바에 따르면 올해 광군제 전체 행사에서 8억 명의 소비자가 알리바바 플랫폼에서 제품을 구매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군제에 참여하는 업체는 25만 곳 이상이다.
배준호 기자 baejh94@

터키 중앙은행 총재 해임한 에르도안 재무장관 사위까지 경질... 불안 고조

터키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리라화 가치가 끝없이 추락 중인 가운데 중앙은행에 이어 대통령 사위인 재무장관까지 연이어 경질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사위인 베라트 알바이라크 재무장관은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한다”며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밝혔다.

이는 무라트 우이살 중앙은행 총재가 갑자기 경질된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나온 경제 정책 수장 교체 소식이다.

2018년부터 재무부를 이끌어 온 알바이라크 장관은 정권 2인자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경제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재무장관으로서 그의 능력에 대한 불신이 커진 데다 우이살 총재의 후임인 나지 아발과의 큰 견해 차가 경질 이유로 거론되고 있다.

알바이라크가 취임한 이후 리라화 가치는 미국 달러화 대비 45%나 떨어졌다. 6일에는 달러당 8.58리라로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여기에 더해 터키 외환보유액이 20년 만에 최저 수준을 나타내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잠재적인 잔액 위기를 완화할 완충장치가 거의 고갈됐다”고 경고했다.

중앙은행 총재와 재무장관이 연이어 경질되면서 터키 경제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콜롬비아스레드니들의 에드 할 후사니 금리·통화 담당 애널리스트는 “리라화 가치를 둘러싼 매우 높은 긴장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우려했다.

시장은 아발 총재가 환율 방어를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고 보지

만, 관건은 그가 에르도안 대통령의 금리 인상 반대 압박을 거스를 수 있을지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그동안 금리를 올리면 물가가 올라 경제에 타격을 준다는 이유로 금리 인상을 반대해왔다. 전문가들은 외화 대비 자국 통화 가치를 높이고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려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터키 중앙은행은 지난해에도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금리를 동결했다.

시장이 우려하는 건 2018년 터키 쇼크 재발이다. 당시 리라화 폭락 여파로 다른 신흥시장 통화에게까지 일제히 매도세가 몰리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친 충격파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최혜림 기자 rog@



당신이 있는 곳이 곧 사무실이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PC와 휴대폰에서도 간단한 접속만으로 재택근무부터 통합 경영관리까지 완벽하게
더존이 대한민국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합니다!

* 정부의 '비대면 서비스' 의무화 사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특별할인’에 ‘정부지원’을 더하다! **단 40만원**만 부담

비대면 업무를 위한 모든 것을 하나로 「홈피스 올인원 팩」
(Home + Office' All in One Pack)

회계관리	기업전용 메신저	화상회의
메일	전자결재	웹오피스
인사관리	내PC 원격접속	웹스토리지
팩스	거래처관리	명함관리
조직도	문서협업 솔루션	할일관리
일정관리	노트	Tedge

*기업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로 만나보세요(근태관리, CRM, PMS, 경비청구, 웹툰 등)

현대차 계열사, 라이벌 車 수주 확대... '1석2조' 효과

현대차그룹 주요 계열사가 글로벌 경쟁사를 상대로 수주를 확대하고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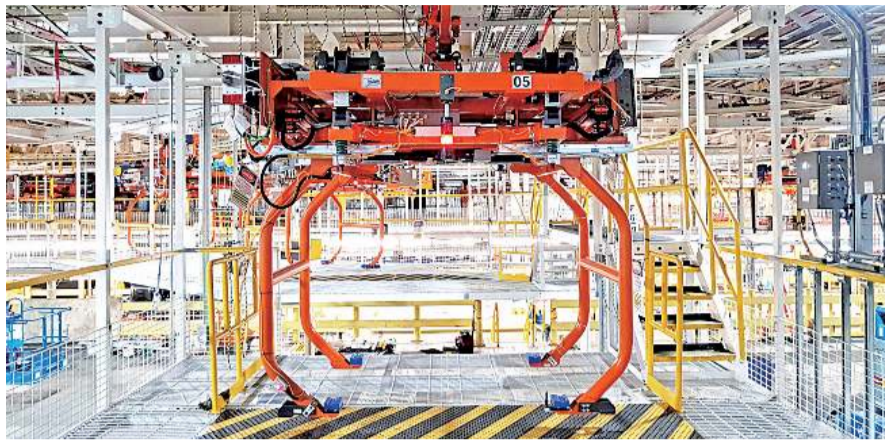
분야별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익선 다변화 전략을 구체화하는 한편, 현대·기아차에 집중된 매출 구조를 개선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도 대응하겠다는 복안이다.

9일 현대로템은 미국 포드의 글로벌 완성차 공장 생산설비를 수주했다고 밝혔다. 로템은 오는 2022년까지 아르헨티나와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에 자리한 포드 공장에 조립 운반설비를 공급하게 된다.

조립 운반설비란 자동차 조립 공정에서 뼈대와 엔진, 도어, 차체 등을 해당 생산라인으로 운반하는 이동 설비다.

앞서 현대로템은 2008년 포드 멕시코공장을 시작으로 2011년 인도공장, 2015년 태국공장, 2016년 미국공장 운반 설비를 지속해서 수주했다. 이번 수주 규모는 총 763억 원 규모, 이를 포함해 포드사로 부터 얻어낸 누적 수주는 약 2800억 원에 달한다.

이번 수주는 1000억 원을 밑도는 수주



현대로템이 포드의 글로벌 공장 3곳에 조립 운반설비를 추가 공급한다. 2008년 첫 수주를 시작으로 누적 수주만 2800억 원에 달한다. 사진은 현대로템이 공급한 포드 미국공장 운반 설비. 사진제공 현대로템

로템, 포드에 車 이동설비...모비스, 지프 '언더보디' 공급 현대기아차 집중된 매출 다변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응

이지만 지난해까지 로템이 영업손실을 기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무적인 수주 실적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매출과 사업 다각화 전략이 본격적으로 효과를 내다고

분석 중이다.

현대로템은 연결재무제표 기준 올해 3분기 311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에는 966억 원 손실을 낸 바 있다.

완성차 부품기업인 현대모비스 역시 현대·기아차에 국한했던 영토를 경쟁사로 확대 중이다.

지난 9월 수입차 시장에 선보인 지프(jeep) 글래디에이터가 대표적이다. 이 모델은 미국 지프의 '오하이오 톨레도' 공장에서 생산한다. 모비스는 이 공장 바로 옆에 모비스 조립공장을 세웠다. 이곳에서 해당 모델의 '언더보디'를 모듈 형태로 조립해 공급 중이다. 언더보디는 프레임과 서스펜션, 구동계를 조립해 하나의 모듈로 만든 형태다. 이 형태로 지프 톨레도 공장에 납품하면 지프는 차체를 얹어 최종 완성한다.

모비스의 수주 다각화 전략은 모듈을 넘어 일반 부품까지 확대 중이다. FCA의 주요 차종에 전조등과 후미등은 물론 실내 디스플레이 모듈도 공급 중이고, GM에는 오디오와 공조장치를 제어하는 중앙 제어 장치도 공급한다. 기술진입 장벽이 높은 유럽에서도 푸조·시트로엥(PSA)에 디스플레이 모듈 공급을 확대 중이다. 나

가 일본 미쓰비시에 첨단 LED 전조등과 후미등을 납품 중이고, 스바루와 마쓰다의 후미등 공급도 확대 중이다.

이처럼 매출과 사업전략 다각화는 분야별 경쟁력 확보는 물론 수익선 다변화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6월 입법 예고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총수 일가의 경영권 집중을 규제하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대표적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총수 일가 지분율이 상장사의 경우 30%, 비상장사는 20% 이상이면 사익 편취 규제를 적용한다. 개정안에서는 사익 편취 규제 대상 상장사의 총수 일가 지분율 기준을 30%에서 20%로 낮춘다. 앞서 현대차그룹 정몽구 명예회장과 정의선 회장이 2014년 각각 광고계열사 이노션의 지분을 19.9%까지 낮춘 바 있다. 당시 강화된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분 구조 개편이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단순하게 법 개정안을 떠나서 계열사별로 수익구조 개편을 꾸준히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LG화학 배터리 법인, 'LG에너지솔루션' 사명 확정

신임 사장 김종현 본부장 유력

LG화학에서 물적분할된 배터리 사업부문 자회사의 이름으로 'LG에너지솔루션(LG Energy Solution)'을 확정했다. 9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이날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런 내용을 공지했다.

LG화학은 9월 17일 배터리 부문의

물적 분할을 결정하는 이사회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라는 사명을 가칭으로 처음 공개했다. 최근까지 여러 사명을 두고 임직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결론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이라는 이름이 배터리 생산을 포함한 연관 사업으로 확장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LG화학은 지난달 30일 주주총회에

서 전자사업 부문의 물적 분할을 확정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내달 1일 출범할 예정이다. 이날 사명도 공식 발표한다.

신설법인의 신임 사장은 김종현 전자사업본부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말 LG그룹의 정기 인사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배리 기자 kimstar1215@

삼성전자 '에코라이프랩' 국제 미생물 시험소 인증

TUV라인란드서 항균·항곰팡이 성능 분석 공신력 확보

삼성전자는 자사 '에코라이프랩(Eco-Life Lab)'이 글로벌 시험·인증기관 독일 'TUV 라인란드'로부터 미생물 검증 전문성을 인정받아 미생물 시험소로 지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획득한 인증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제 표준 규격으로, 플라스틱 및 기타 재질 대상으로 박테리아 항균력을 평가하는 'ISO 22196'과 플라스틱 내 항균제의 곰팡이 생장 저해 효과를 확인하는 'ISO 846'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인증 취득을 통해 제품 소재의 항균, 항곰팡이의 성능분석·평가에 대한 전문성과 대외 공신력을 확보하게 됐다.

삼성전자는 지난 1월 제품의 건강·위생 관련 감성품질 향상을 위해 제품 사용으로 인한 냄새·곰팡이·알레르기 등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개선하기 위해 '에코라이프랩'을 신설했다. 또, 미생물 분석과 검증



삼성전자 연구진이 미생물 분석과 검증을 위해 계수기를 활용해 생균 수를 측정하고 있다.

을 위해 올해 미생물·의학 분야 석박사 전문인력을 영입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밀 분석을 위해 1조분의 1g까지 분석이 가능한 고분자물질 정밀 분석기와 유기물질 분석기 등을 도입했다.

제품 기획 단계부터 최종 소비자가 사용하는 환경까지 고려해 냄새·곰팡이·알레르

기 등의 종합적인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제품에 특화된 미생물 검증 프로세스를 구축, 해결책 확보에도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날 'TUV 라인란드' 한국지사 카스텐 리네만 대표이사와 삼성전자 글로벌CS센터장 전경빈 전무가 참석한 가운데, 수원 삼성 디지털시티에서 미생물 시험소 인증서를 수여하는 인증식을 가졌다.

삼성전자 글로벌CS센터장 전경빈 전무는 "이번 인증 취득으로 자체 평가에 대한 전문성과 공신력이 확보됐고, 제품 내 건강·위생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빠른 분석과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2006년 제품의 유해성을 자체 평가할 수 있는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ISO 17025' 인증을 받았다.

이번에 독일 'TUV 라인란드'로부터 냄새·곰팡이·알레르기 등 미생물 분석을 위한 인증까지 취득하면서 총 2개의 사외 인증 시험소 자격을 갖추게 됐다.

노우리 기자 we1228@



KAI, 육군에 의무헬기 납품 완료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9일 국산 의무후송전용헬기(KUH-1M) 최종호기를 육군에 인도했다. 의무후송전용헬기는 수리온을 기반으로 전문의료장비를 장착한 국내 첫 의무후송 전문헬기다. 후송 중에도 중증 환자 2명의 응급처치가 가능하고 6명까지 수송할 수 있다. KAI는 2018년 12월 의무후송전용헬기 양산 계약을 체결했으며 올해 1월부터 첫 인도를 시작해 이날 최종호기 출고로 납품을 모두 완료했다. 사진제공 한국항공우주산업

제일기획, 써보고 사는 이커머스 '겟트' 론칭

제일기획이 제품을 체험한 후 구매할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 이커머스 플랫폼 '겟트(GETTT)'를 9일 론칭했다.

'GET THE TASTE(취향을 얻어라!)'라는 의미를 담은 '겟트'는 렌탈 방식을 통해 다양한 제품과 브랜드를 체험하고 자신만의 취향을 찾도록 도와주는 신개념 이커머스 서비스다. 패션 아이템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뷰티, 테크 등 폭넓은 라이프스타일 카테고리의 70여 개 브랜드가 현재 입점해 있다.

겟트에서는 렌탈 중인 제품이 마음에 들면 즉시 구매로 전환할 수 있다. 이때 해당 제품의 렌탈 횟수에 따라 가격 할인이 적용

돼 소비자의 구입 부담이 다소 낮아질 수 있다. 새 상품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렌탈 제품 반납 후 새 상품으로 구입 가능하며 렌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 온라인 쇼핑 몰처럼 새 상품을 바로 구매할 수도 있다.

겟트의 렌탈 서비스는 개인 소비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상과 소품을 필요로 하는 중소형 콘텐츠 업체를 대상으로 한 B2B 렌탈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도 특징이다. 이 밖에 마음에 드는 제품을 집에서 편하게 입어본 후 제품을 구매하거나 무료로 반품할 수 있는 'FITTING DELIVERY(피팅 딜리버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송영록 기자 syr@

한화큐셀, 풍력발전 진출...토털 에너지 기업 진화

평창에 40MW급 발전소 MOU

한화큐셀이 풍력발전 사업에 발을 내디뎠다. 한화큐셀은 9일 강원도 평창군청에서 평창군, 한국중부발전, 태환 등과 평창 지역 풍력발전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평창군에 40MW(메가와

트)급 풍력발전소를 조성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사업으로 평창군은 산악관광 사업의 기반을 만들고 사업 참여자들은 지역 사회 소득증진과 고용창출에 이바지한다. 중부발전은 사업 개발 지원과 풍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로 발급되는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전량 구매하고 발전소 운영과 유지보수에 참여한다. 한화큐셀

은 풍력발전소 EPC(설계·조달·시공)를 수행하고 태환은 인허가 등을 포함한 사업 개발을 주관한다.

한화큐셀은 그간 태양광 셀과 모듈 사업에 집중해오다 올 1월 '토털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진화하겠다는 비전을 수립했다. 풍력발전도 그중 하나라고 한화큐셀 측은 설명했다. 김배리 기자 kimstar1215@

한국조선해양, 원유운반선 2척 2000억 규모 수주

한국조선해양은 최근 유럽 소재 선사와 30만 톤급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2척 총 2000억 원 규모의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길이 330m, 너비 60m, 높이 29.7m로, 배기가스 저감 장치인 스크러버를 지녀 환경규제에 대응할 수 있다.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서 건조돼 2022

년 6월부터 차례로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이다. 한국조선해양은 올해 들어 초대형 원유운반선 11척을 수주하며 전 세계 시장 점유율 5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9월 이후에만 총 8척에 대한 계약을 잇달아 체결하며 코로나19 사태로 둔화된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초대형 원유운반선 수주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우리금융그룹

우리은행

WON 하는대로 돈보이는 금융생활

쉽고 편리한 금융생활 돈보기, 우리WON뱅킹



WON하는대로
우리WON뱅킹

우리WON뱅킹
다운로드 하기 

•우리WON뱅킹 앱은 AOS 4.3 이상, iOS 9.0 이상 사용 가능하며, 2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일부 타행 사정에 의해 시간에 제약을 받는 서비스(오픈뱅킹 등)가 존재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은행 홈페이지 (www.wooribank.com)를 참조하시거나 고객센터(1588-5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08.12 준법감시인-1840 심의필(유효기간 : 2021.08.31)

철광석 이어 니켈까지 급등...업계 '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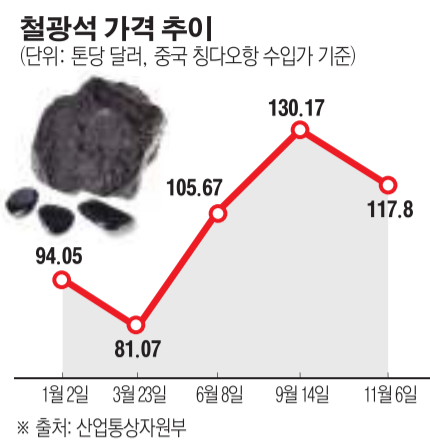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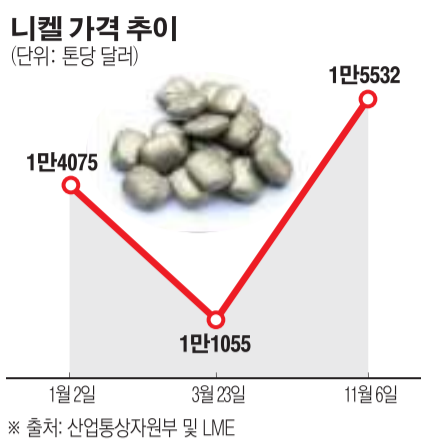
스테인리스강(STS) 원재료인 니켈의 가격이 최근 치솟고 있다. 중국이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를 시행하면서 STS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결과다.

철광석 가격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상승하면서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는 철강업체들은 니켈 가격마저 오르면서 울상을 짓고 있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영국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니켈 가격은 6일 기준 톤(t)당 1만5532달러이다. 연중 최저치를 찍었던 3월 23일(1만1055달러)과 비교했을 때 약 8개월 만에 40% 상승했다.

니켈 가격이 급격히 오른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자 중국이 인프라 투자를 감행하면서 STS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제 중국 철강사들은 STS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외 생산설비를 확대하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인수합병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국 최대 철강사인 바오우그룹은 올해 8월 STS 생산업체인 타이강을 인수하면서 STS 생산



중국 스테인리스강 수요 확대로 니켈 가격 40% 올라 철강업계 "전례없는 한해 보내...채굴 늘어 곧 정상화"

능력을 1000만 톤으로 확대했다.

니켈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STS 생산량을 계속 늘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니켈이 들어가는 전기차 배터리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철강업체들은 니켈 가격 추세를 STS 가격에 반영할 예정이다. 다만 철강업계 관계자는 "협상을 다시 진행하고 있지만, 업

체들이 경기 불황을 이유로 제품 가격 인상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철강업체들이 많이 사용하는 철광석 가격도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생산 차질 여파로 올해 초부터 예년보다 30~40달러 높은 110달러대를 유지하고 있다.

삼성엔지니어링·아스펜테크 플랜트 운영 최적화 업무협약

삼성엔지니어링은 4일 공정 자산 솔루션 소프트웨어 분야의 글로벌 기업인 아스펜테크와 '디지털 기술 기반의 플랜트 운영 최적화'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협약식은 삼성엔지니어링 최성안 사장과 아스펜테크 안토니오 피에트리 사장의 온라인 화상 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서명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삼성엔지니어링의 주요 발주처가 운영 중인 플랜트에 아스펜테크가 보유한 디지털 솔루션 프로그램과 삼성엔지니어링의 기본설계(FEED) 경험 및 역량을 활용해 공장 운영을 최적화하는데 협력하는 것이다.

양사는 지난해 주요 발주처 현장에 시범적으로 적용해 그 기술력을 인정받은 바 있으며, 이번 협약으로 그 범위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최고의 설계·조달·공사(EPC) 기술력으로 시공한 플랜트 현장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운영 노하우까지 발주처에 제공할 계획이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한영대 기자 yeongdai@

YouWho

아시아 유일!! 국내 최초!!

DNA 혈통분석 서비스

그것을 아십니까?

한국인이라도 다양한 인종의 혈통이 섞여 있다는 사실을

YOU WHO Meet you All

유호는 이원다이애그노믹스(EDGC)에서 개발한 DNA 분석 서비스로서 민족 특이적인 유전정보가 어떻게 섞여 있는지를 분석해 개인의 유전적 조상 계보를 알려줍니다.

국내 전체 유전체 기업 중 유전자 혈통 분석이 가능한 기업은 EDGC가 유일합니다.

나의 DNA와 6대륙 22개 인종 95개 국가 원주민 DNA를 비교합니다. 나의 부계 7개 그룹, 모계 12개 그룹의 유전체 혈통을 알 수 있습니다. 30억 장 DNA 염기서열 기반 70만여 개의 핵심 유전자 변이체의 감성형입니다.

2020 레드닷 어워드 수상
Designed by B for Brand
www.b-forbrand.com

제품상담: 032-713-2128
구매문의: www.youwho.co

NAVER

배·비행기 부족해 '물류대란' 조짐

해운운임 사상 최고치...화물기 공급도 더뎠다 수출 비상

해운물류가 운임 급등과 선박 부족으로 공급난을 겪는 가운데 항공화물의 공급 불균형도 지속하면서 '물류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9일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따르면 9월 기준 글로벌 항공화물 수요는 전년 동기보다 8%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이전보다 감소 폭을 줄였으며 항공화물 수요가 코로나 이전의 90% 이상을 회복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글로벌 항공화물 수요는 8월 전년 대비 12% 감소했다. 5월 전년 대비 20.1% 감소에서 6월 16.6%, 7월 13.5%로 감소 폭을 줄여왔다.

반면, 항공화물 운송 공급은 9월 기준 전년 대비 25.2% 감소했다. 이전보다 개선되고 있으나 수요 감소보다 공급 감소가 3배 이상 큰 폭을 기록했다. IATA는 "여전히 시장에서 항공화물 공급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풀이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여객 수송과 함께 벨리카고 용량이 줄어들었다. 벨리카고 공급 감소율은 둔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년 대비 -60% 이상이다. 해외여행 포기가 연말 보복성 소비로 이어지면서 여객기 운항은 늘어나지 않지만 화물 수요는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에 국내 항공사들은 여객기에 화물을

실어 나르거나 아예 화물기로 전환해 화물 사업을 확대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여객기 2대를 화물기로 전환했으며 진에어는 여객기 하단부를 화물칸으로 운영하는 벨리카고 방식으로 미국 본토에 화물을 운송했다. 티웨이항공과 제주항공은 가내 좌석에 화물을 싣고 운항했다.

해운업계도 화물 운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탓에 컨테이너 운임은 사상 최고치를 새로 쓰고 있다. 컨테이너선운임지수(SCFI)는 6일 기준 전주 대비 134.57 오른 1664.56을 기록했다.

국내 수출기업들은 최근 미국의 소비재 수요 증가, 블랙프라이데이 등 계절적 수요의 영향 등으로 수출계약 물량이 늘었지만, 수출 컨테이너 선박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국내 선사는 미주항로에 선박을 긴급 투입하는 등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HMM은 국내 수출기업을 위해 긴급 투입한 컨테이너선 두 척이 부산항에서 미국 LA로 출항했다고 1일 밝혔다.

HMM은 앞서 두 척의 임시선박을 투입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선박 부족이 예상되는 내년 2월까지 매월 1척 이상의 임시선박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주혜 기자 winjh@

삼성전자, 미국서 3년 만에 스마트폰 1위

3분기 점유율 34%...애플 30%

삼성전자가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3년 만에 애플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9일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미국 스마트폰 점유율 33.7%를 기록했다. 이는 전 분기(27.3%), 작년 동기(27.0%)보다 약 6%포인트 점유율이 상승한 수치다. 애플은 점유율 30.2%로 2위를 차지했다. LG전자는 14.7%로 3위를 기록했다.

삼성전자가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1위를 한 것은 2017년 2분기 이후 3년 만에

다. 특히, 3분기 1위를 차지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애플은 통상 9월에 아이폰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3~4분기 미국 시장 점유율 약 40%를 차지한다. 그러나 올해는 아이폰12 출시가 10월 이후로 미뤄지면서 삼성전자가 시장 점유율을 선점한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는 올해 8월 갤럭시 노트20, 갤럭시Z 폴드 5G와 9월 갤럭시Z 폴드2와 함께 중저가폰 판매량을 늘렸다.

한편, 삼성전자는 3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21.9%의 점유율로 화웨이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하마평·후보 全無...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4연임?

금융 인사이드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의 임기 만료가 내년 3월로 다가오는 가운데 '연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회장이 4연임이란 추가 연임 가능성 여부에 대해 일체 함구하면서 후임으로 아무도 거론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다만 현재 68세인 김 회장이 4연임에 성공하더라도 '만 70세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하나금융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라 1년만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시나리오만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하나금융지주 내부에서는 통상적으로 연말에 진행되던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에 대한 움직임도 전무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김 회장이 내부규범 개정을 통해 4연임에 도전하는 것

함영주 부회장 '사법리스크' 발목
회추위, 후보군 선정 '요지부동'

회장 '만 70세 미만' 나이 제한
내부규범 개정 후 연임 가능성

아니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 내부에서는 아직 회추위의 공식적 활동이 시작되지 않았다. 3년 전 회장 선출 과정을 보면 2017년 10월 27일에 사외이사진 중 한 명을 회추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회장 후보군 선정 작업을 시작했다. 이후 2018년 1월 5일 회추위 첫 회의를 열고, 같은 달 22일 회장 후보를 최종 추천하는 과정을 거쳤다. 차기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후보군 선정과 심사 과정 등을 고려



하면 최소 3개월가량의 시간이 필요하다. 10월 말에는 회추위가 공식적 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올해에는 10월을 넘겼음에도 하나금융 내부에서 회추위 움직임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현재 함영주 부회장이 사법리스크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김 회장이 이어가는 친정체제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면서 "연초가 될 때까지 차기 회장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함 부회장은 김 회장에 이어 유력한 차기 회장 후보로 꾸준히 거론됐다. 그는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을 통합한 KEB하나은행 초대행장을 맡아 이미 경영능력을 검증 받았다. 그러나 채용비리와 DLF 사태에 발목이 잡혔다. 무엇보다 금감원이 올해 초 DLF 사태의 원인이 내부 통제 절차 미비에 있다고 보고, 그 책임을 물어 함 부회장에게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렸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17년에도 금감원은 특혜 대출 의혹, 채용 비리 의혹 등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하나금융지주 회장 선임 절차에 제동을 걸었다.

또한 함 부회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옵티머스 사태 책임

에서도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옵티머스 자산운용은 지난해 12월 하나은행과 펀드 수탁계약을 맺고 옵티머스의 자금 보관과 집행을 맡았다. 금융지주 회장인 김 회장이 지난해 3월까지 은행장을 맡았던 함 부회장의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는 것도 김 회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현재는 옵티머스와 라임 등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감독당국 검사가 걸려 있어 김정태 회장이 강하게 4연임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가 힘든 상황"이라면서 "현재로서는 함영주 부회장이 공식적으로 회장직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내년 초 김 회장의 임기가 끝나면 그때 회추위를 통해 본격적으로 4연임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



금융정의연대와 전국 사모펀드 사가판매 피해자 내 라이펀드 피해자연합은 9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감독원 분조위는 사가판매 라이펀드를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전액 반환 결정하라"고 주장했다.

〈NH농협금융 회장〉

김광수 "내·외부 아이디어 결집 고객 중심 디지털 전환 가속도"

김광수(사진) NH농협금융 회장은 "농협금융 DT가 본계도에 오른 만큼 이제는 내·외부의 아이디어를 결집하고 비즈니스로 연결하는 협업체계를 마련해 고객 중심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더 내야 한다"고 9일 강조했다.



도모하고 계열사 연계 서비스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고객 맞춤형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계열사별로 VoC(Voice of

Customer) 쌍방향 소통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고객 의견 당일 답변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은행은 고객 의견에 대해 데이터로 분석·관리하고 있으나 STT(Speech-To-Text)/TA(Text Analysis) 활용을 통해 분석 대상을 확대하고 분석 정확도도 지속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대한 핵심 방안으로 은행 디지털R&D센터에 내·외부 집단지성 결집의 중추적 역할을 부여하고 그룹 'Shared Service Center(공유 서비스 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클라우드 기반 개방형 협업 플랫폼을 통해 고객, 직원, 스타트업, 대학생 창업동아리 등의 내·외부 아이디어를 결집하고 디지털선행기술 도입 연구, 조사, 인큐베이팅을 거쳐 비즈니스(사내벤처 등)로 구현할 계획이다. 또한, 2017년부터 은행권 최초로 시작된 해커톤 대회를 올해는 사회적 거대두기를 감안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네이버 클라우드와 오픈API 활성화를 위한 농협API 활용 및 AI 연계서비스 개발을 위해 기업과 일부부문으로 나눠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범위를 확대해 농협금융 임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계열사 부문도 신설해 Digital First 문화 붐 조성을

보험은 디지털 제안장구, 소비자패널, 콜센터 개선위원회 등 고객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한편 고객 사용현황을 분석하는 데이터 분석시스템의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협은행은 영업점, 콜센터, 모바일 앱 등 모든 채널의 고객 접촉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하는 '고객 접촉내역 360도 바라보기(360° 고객 상급뷰)' 시스템을 11월 중 완성해 고객 응대·상담 업무에 적용할 계획이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실시간으로 통합된 고객정보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마케팅을 제공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차세대 정보계 구축에도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지연 기자 sjy@

증권사 '라임 제재심' 앞두고... 은행권 '조마조마'

내부통제 미흡·불완전판매 책임
증권사 최고경영자 징계 유력

내달 신한銀·우리銀 제재심 착수
같은 수위 징계 뎀 연임 '떡구름'

라이펀드 사태와 관련한 증권사 최종 제재심을 앞두고 판매 창구 역할을 한 은행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내부통제 부실 책임으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징계가 유력한 가운데 은행권 역시 같은 제재를 받을 경우 CEO 연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10일 라이펀드를 설계하고 판매한 증권사(KB증권, 신한금융투자증권, 대신증권) 3차 제재심을 열고 최종 제재수위를 결정한다. CEO 징계가 유력해지면서 추후 있을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제재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감원은 내달 중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제재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20일 금감원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등에 라이펀드 판매 관련 현장검사 결과를 반영한 감사의견서를 보냈다.

금감원은 두 은행으로부터 이달 초순까지 감사의견서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 받고, 이를 참고해 내달 본격적인 제재심에 착수한다. 다만, 라이펀드사태 관련 증권사 제재심이 결국 3차까지 연기되는 등 당국과 금융회사 간 공방이 치열한 상황이다. 지금과 같은 분위기라면 은행 최종 제재 결과는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공방의 핵심은 내부통제 절차 미흡을 통한 불완전판매 책임이 CEO에 있는지 여부다.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근거로 경영진 제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융회사는 CEO 징계는 과하다며 맞서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내부통제 실패 시 CEO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CEO를 제재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논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원금 손실로 물의를 빚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도 내부통제 부실을 근거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겸 우리는

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DLF 사태 당시 하나은행장)이 중징계(문책경고)를 받았었다. 하지만 이들은 제재에 불복해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금감원의 은행 제재심이 증권사 제재심처럼 해를 넘길 경우 올 연말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는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연임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윤석현 금감원장의 소신을 고려할 때 CEO 징계는 불가피해보인다. 라이펀드 피해자들도 수차례 집회를 열고 라이펀드 판매사들의 중징계를 주장했다.

9일 라이펀드 피해자들은 집회를 열고 불완전판매 책임의무를 소홀히한 신한과 우리은행의 CEO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은행 라이펀드 피해자는 "우리은행은 지난해 2월부터 라이펀드의 부실을 감지하고 그동안 팔아왔던 개방형 상품을 폐쇄형으로 바꿔 팔아왔다"며 "고객의 투자성향을 판매자가 임의로 기록해 고위험 상품에 가입이 가능하게 만드는 등 불완전 판매가 아니라 사기계약이 분명한 만큼 라이펀드 계약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김범근 기자 nova@

하나銀, 年 12% 금리 적금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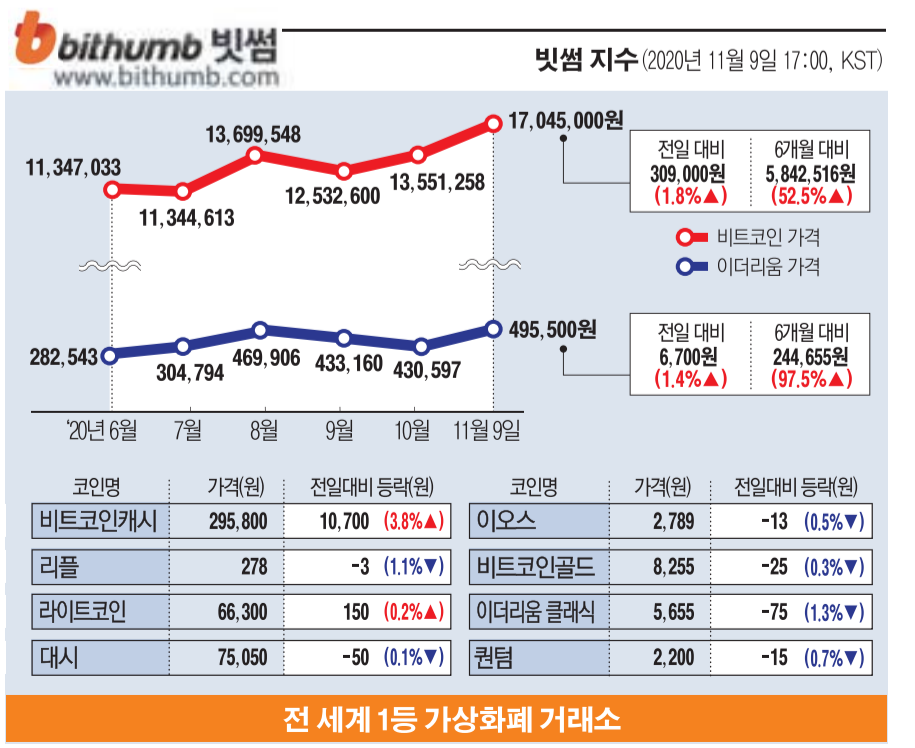
하나은행은 삼성카드와 제휴로 최대 연 12% 금리의 '하나 일리있는 적금'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6개월간 삼성카드 이용실적이 없는 사람이 '삼성아멕스블루카드'로 매월 1

만 원 이상 사용하거나, 3개월 이상 누적 사용금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연 최고 12% 금리를 제공한다.

하나원큐 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 하나 일리있는 적금은 선착순 5만 명을 대상으로 판매된다. 월 납입액은 10만 원, 가입 기간은 1년이다.

문수빈 기자 bean@



“당첨되면 로또”...국민 절반이 청약통장

분상제 확대 이후 가입 급증

대한민국 사람 절반 이상이 청약통장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로또 청약’ 기대감이 커지면서 분양 경쟁은 더 치열해졌다.

한국감정원 등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가입자는 2681만2857명이다. 9월 대한민국 인구(약 5178만명) 절반을 넘어서는 수다. 지난해 같은 달(2528만6601명)과 비교해도 152만 명 넘게 늘어났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경쟁은 ‘역대급’으로 치열해졌다. 경기 과천시 갈현동 지식정보타운에선 3일 세 개 단지(과천 르센토 데시앙·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가 동시 분양했는데 총 48만 명이 몰렸다. 서울에서도 지난달 강동구 상일동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

움’이 서울 지역에서 역대 최고 청약 경쟁률(537대 1)을 기록했다.

부동산 시장에서 청약 경쟁 과열이 민간 택지로까지 확대된 분양가상한제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지식정보타운 세 개 단지는 전용면적 84㎡형을 8억 원대에 분양하는데 주변 단지 시세보다 10억 원가량 저렴하다.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음도 민간택지 아파트지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전용 84㎡형을 8억6600만 원에 분양했다. 인근 단지와 비교해 4억 원 넘게 싸다. 만약 이들 단지에 아파트를 분양받는다면 수익 원식 분양 차익을 챙길 수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청약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당첨 문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음의 경우 당첨자 최저 가점이 69점이었다. 4인 가족이라도 청약 통장 가입 기간과 무주택 기간에서 모두 만점인 15년을 채워야 69점을 받을 수 있다.

박종화 기자 pbell@

집값 연일 신고가 행진... 지난주에만 1.94% 급등 김포 ‘규제지역 지정’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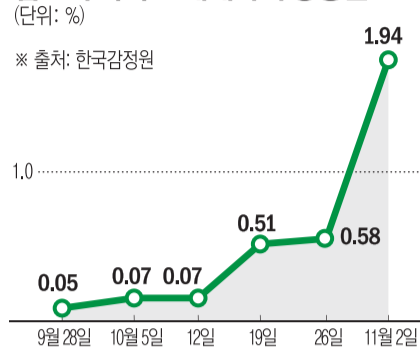
서울 전세난민 김포 속속 유입 LTV 70%... 목돈 없어도 매입 매도인 호가 수천만 상향 조정 “요건 갖춰 언제든 규제 가능”

경기 김포시 감정동 한강신안실크밸리3차 전용면적 84㎡형은 지난달 15일 매매값이 처음으로 4억 원을 찍고 일주일 뒤에 4억3000만 원(7층)으로 신고가를 새로 썼다. 지난달 초 3억 원 초반대에서 거래되던 같은 면적 저층 물건도 이달 4일 시세가 4억3000만 원(3층)으로 급등했다. 현재 호가(집주인이 부르는 값)는 최고 5억2000만 원까지 뛰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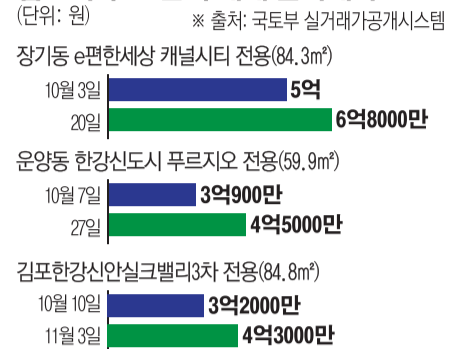
김포시 운양동 한강신도시 푸르지오 전용 59㎡형도 지난달 25일 처음으로 4억 원을 찍은 뒤 이틀만에 최고가인 4억5000만 원으로 오르더니 지금은 최고 5억2000만 원을 호가한다.

김포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

김포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김포시 주요 단지 매매 실거래가



다. 서울 전세난을 견디지 못한 전세난민들이 집값이 비교적 싸면서도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인근 김포로 밀물처럼 유입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김포시가 수도권에 맞닿는 비규제지역이라는 점도 한 몫을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김포시 아파트값은 지난주에만 1.94%(3일 기준) 뛰었다. 9월 마지막 주 0.05% 수준이었던 상승폭은 10월 들어 0.07%로 커진 뒤 0.51%(10월 19일 기준) → 0.58%(10월 26일)로 경증 뛰었다. 지난주 상승폭은 전주 대비 무려 3배 이상 크다.

김포시 운양동 A공인 관계자는 “6·17 부동산 대책 이후 한바탕 물량이 빠진 뒤 잠잠해지다가 추석 직후 거래 건수가 늘더니 최근 몇 주세 수천만원씩 올랐다”며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뛰니 매도인(집주인)이 매물을 거두거나 계약을 하고도 이를 파기하고 다시 매물로 내놓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전했다.

풍무동 센트럴 푸르지오 112㎡형의 경우 지난달 거래가 처음으로 10억 원을 찍었다. 직전 최고가(9억5000만 원)가 나온 지 1주일 만이다. 지난 6월 7억8000만 원

으로 첫 거래가 이뤄진 뒤 불과 4개월 만에 2억2000만 원이 급등했다. 현재 최고 11억2000만 원에 매물이 나와 있다.

이 단지에선 지난달 10일 7억 원에 나왔던 59㎡형 매물이 4일 만에 1000만 원 상향조정된 뒤 지난주엔 4000만 원이 더 뛰었다. 현재 호가는 7억5000만 원이다.

풍무동 B공인 측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D노선에 대한 기대감에다 대출이 쉽고, 가격 부담도 적어 관심을 보이는 서울 거주자들이 많다”며 “특히 서울 마곡지구 아파트 진입 장벽이 높아진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포는 지난 6·17 대책 이후 비규제지역으로 살아 남았다. 이에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까지 받을 수 있다.

김포 집값이 들쭉이면서 이 곳도 규제지역으로 묶이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김포 집값 급등은 비규제지역에 따른 ‘풍선효과’ 때문으로 봐야 한다”며 “김포는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만한 정량적 요건을 갖추고 있어 언제든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www.kwnews.co.kr

대한민국 국민이 함께 보는

江原日報 X NAVER

강원도를 넘어 전국으로! 세계로!
강원도의 이익이 강원일보-네이버를 통해 극대화 됩니다.



江原日報社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23
T. 033)258-1000

송파 거여동에 부는 리모델링 바람

3개층 증축 가구 수 15% 확대 거여 4·5단지 이어 1단지 추진

서울 송파구 끝자락에 자리한 거여동에 아파트 리모델링 바람이 불고 있다. 구축 아파트 단지들이 잇달아 리모델링 사업에 들어가서다. 인근 위례신도시와 거여·마천 뉴타운이 개발사업에 속도를 내면서 동일 생활권 인프라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송파구 거여동 ‘거여4단지’는 최근 리모델링 사업에 본격 뛰어들었다.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를 꾸려 단지 내 안내 현수막도 걸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주민동의서도 받고 있다.

추진위 관계자는 “현재 사업 초기 단계로 주민 동의율을 채우면 조만간 리모델링 사업설명회를 진행하고 수직증축 방식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이란 기존 아파트 꼭대기층 위로 최대 3개층을 더 올려 짓는 것을 말한다. 총 가구 수의 15% 범위 안에서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다.

1997년 7월 준공한 거여4단지는 6개동에 총 546가구(전용면적 40~60㎡)로 이뤄졌다. 용적률은 240%, 건폐율은 24% 수준이다. 지하철 5호선 거여역에서 도보 거리에 위치한 단지로, 인근에 위례신도시와 거마뉴타운이 조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 내 상업시설 등 생활 인프라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리모델링 기대감이 매매가격도 오름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거여4



단지 전용 50㎡형은 최근 7억9000만 원에 팔렸다. 직전 거래가 7억3900만 원(9월 초)에서 5000만 원가량 오른 것이다. 이 단지 전용 60㎡형도 지난 6월 7억8000만~7억9000만 원대에서 9월 말 8억5000만 원으로 매매가격이 석달 새 6000만 원 넘게 올랐다.

1000가구 대규모 ‘거여1단지’도 리모델링 시동거여5단지는 리모델링 추진위 공식 발족

거여4단지에 이어 1000가구가 넘는 ‘거여1단지’도 리모델링 사업에 뛰어들 태세다. 실소유주 중심으로 임시 추진위를 꾸려 리모델링 관련 활동을 진행해 왔는데, 이달 19일 입주주민대표회의를 열어 공식적인 리모델링 사업 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1997년 11월 지어진 거여1단지는 6개동에 총 1004가구(전용 40~60㎡) 규모의 대단지다. 용적률은 275%, 건폐율은 30% 수준이다.

앞서 거여5단지(1997년 준공, 총 605가구)는 지난달 말 리모델링 추진위를 발족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秋·尹 ‘특활비 검증’ 갈등 최고조

국회 ‘주머니돈’ 의혹에 검증 결과 따라 부메랑 될 수도 尹 “검찰의 주인은 국민” 강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검찰청과 법무부의 특활비 사용 검증에 나섰다. 여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특활비 사용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봤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9일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법무부, 검찰의 특활비 지급과 집행서류 등에 대한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앞서 추 장관은 5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윤총장에 대해 “특활비를 주머니돈처럼 쓰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는 등 두 사람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현장 검증에서 대검의 특활비가 부적절하게 사용된 정황이 나오면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반면 추 장관의 주장과 달리 적절한 것으로 결론나면 여권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특활비를 월별, 분기별 집행계획을 세워 집행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 자료를 관리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법무부의 특활비 사용으로 이번 의혹 제기가 추 장관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올해 대검에 배정된 특활비는 94억 원인데 이 중 10% 수준인 10억 원 안팎이 법무부에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활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다. 법무부 특활비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전용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이해관계에 따라 추 장관과 윤 총장의 특활비를 검증했다. 애초 다른 관점으로 검증을 실시한 만큼 결과에 대한 평가도 상반됐다.

검증반장인 백해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이 가장 많지만 특활비는 전년 대비 절반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또 “윤 총장이 사용한 내용 제출하지 않아 정치자금 사용 부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에서 특활비 자료를 안 낸 것과 같다”며 “(추 장관 사용내역도) 전혀 자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에도 대체적으로 전체 특활비의 16% 정도는 꾸준히 가고 있다”며 “추 장관이 될 확인을 하고 공개적으로 특활비를 중앙지검에 한 푼도 안 써서 수사를 못한다고 발표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검증이 끝난 직후 “추 장관은 윤 총장 취임 후 예년과 달리 검찰 특활비를 배정받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았다”며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은 계속 진행할 뜻을 밝혔다.

한편 윤 총장은 이날 오후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신입 차장검사 14명을 상대로 리더십 강연을 했다. 윤 총장은 “국민의 감찰은 감찰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윤석열(왼쪽) 검찰총장이 신입 차장검사 대상 강연과 만찬을 위해 9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을 찾아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등과 강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檢 ‘대학원 입학 청탁’ 중앙대 前 총장 수사

고위공무원 등 2명 선발 요청 의혹

중앙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고위공무원 등 2명을 선발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전임 중앙대 총장을 수사 중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형사8부(이환기 부장검사)에 중앙대 교수협의회(교수협)가 김모 전 중앙대 총장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강요미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하고 고발인 조사 등을 진행했다.

교수협은 김 전 총장이 2013년 경영대 무역물류학과 박사 과정 선발 당시 심사위원인 A 교수에게 ‘고위공무원 구모 씨 등 2명을 3등 이내로 만들어달라’는 내용의 청탁성 이메일을 보냈다고 검찰에 고발했다.

교수협에 따르면 김 전 총장은 부총장이던 2013년 11월 A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좋은 사람을 추천할 테니 이력서를 참조해 심사위원들을 설득해 입학시켜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

A 교수는 이런 청탁내용을 다른 심사위

원 교수 2명에게 전달했으나 구 씨 등 2명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각각 4등과 5등에 배정됐다. 그러나 선발 정원이 5명으로 늘면서 구 씨 등 2명 모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총장은 청탁이 실현되지 않자 A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그런 것도 제대로 못하냐”며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A 교수는 이듬해 중앙대로부터 표적감사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강요받았다고 중앙대를 상대로 하고 무효확인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중앙대 관계자는 “무역물류학과가 인기 있으며 정부 과제를 수행하는 곳이라서 합격 인원이 많이 배출됐다”며 “2013년 당시 합격 예정 인원이 원래 3명에 불과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의혹 제기는 교수협 측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입학사정고 합격자 결정이 이뤄졌으며 김 전 총장이 보낸 이메일 내용은 실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기영 기자 pgy@

‘국정농단’ 재판부, 삼성 준법감시위 검증위원 선정완료

파기환송심서 홍순탁·김경수 추가... 준법위 실효성 검증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점검할 전문심리위원으로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회계사와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추가로 지정됐다. 홍 회계사와 김 변호사는 특검 측과 이 부회장 측이 각각 추천한 인물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특검과 변호인이 추천한 후보들을 면담한 뒤 두 사람 모두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은 각각 상대

가 추천한 후보를 두고 이의를 제기했다.

특검은 “김 변호사는 율촌 기업형사팀 파트너 변호사인데, 삼성 관련 다수의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에 연루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변호인으로 참여해 피고인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홍 회계사가 소속된 참여연대는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사유로 고려하는 것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을 냈고, 개인적으로도 삼성 사건의 고발인 중 1명으로 이해관계에 중립적인 인물이

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은 준법감시제도의 개선 방안과 실효성, 지속가능성에 대한 점검으로 국정농단이나 삼성 합병 사건의 사안이나 사실관계는 점검 대상이 아니다”며 두 후보 모두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이어 “홍 회계사는 기업범죄에 대한 분석과 의견을 제시한 경력이 있어 뇌물이나 횡령 등 기업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해 누구보다 관심이 있고 전문성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5일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한 바 있다. 김종용 기자 deep@

박영사
신간도서

기업성과에 날개를 다는 효과적 영업

관계지향적 영업

영업성공을 위한 고(高)성과 노하우 터득하기

“영업직에 막 입문하는 사람들과 현직에 있는 영업사원, 더 나은 실적을 고민하고 계시는 기업의 영업 관리자 분, 그리고 영업 연구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을 위한 도서”



신A5판 / 280P
정가 14,000원

저자약력



박정은
이화여대 경영대학 교수
이화여대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
한국마케팅학회 부회장
한국마케팅관리학회 부회장
한국유통학회 부회장



곽민준
한국세일즈연구원 원장
(주)이음헬스케어 대표이사
진 김정문알로에 대표

남촌酒 빛고, 골목 영화제... 도시재생의 '맛과 멋'

2020 서울로 잇다 페스티벌

서계 '런웨이'·중림 '술빛기'·회현 '푸드쇼' 코로나에 온라인 참여 확대 즐길거리 풍성 서울역 일대 3대 지역 축제 유튜브서 소개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지역의 대표 축제인 '2020 서울로 잇다 페스티벌'이 올해는 온택트(Ontact) 방식으로 열렸다. 서계·중림·회현동에서 지난달 17~18일, 30~31일 총 4일간에 걸쳐 진행됐다. 기존에는 공연과 체험 행사를 채워졌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처음으로 비대면 행사로 기획됐다. 주민들의 참여는 전보다 줄었지만 온라인 참여 기회를 확대하면서 즐길 거리가 더욱 많아졌다. 도시재생으로 활력 넘치는 생생한 현장을 담은 페스티벌 영상은 이번 주부터 차례로 서울시 등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소개된다.

◇영상으로 시민을 만난다= '서울로 잇다 페스티벌'은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공동체의 통합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2015년부터 개최됐다. 서계·중림·회현동 3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행사의 방식과 내용이 달라진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온택트 방식을 택했다.

서울시는 올해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이 마무리되는 만큼 거점시설의 모습과 주민들의 이야기를 콘텐츠로 남기는데 방점을 찍었다. 이를 위해 각 지역의 특색을 담은 프로그램을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거점시설과 지역 명소를 배경으로 촬영을 마쳤다.

◇'지역 특색' 입은 페스티벌= '잇다 페스티벌'은 서계동, 회현동, 중림동의 특색을 담아 지역 주민들만의 콘텐츠로 구성됐다.

서계동 축제인 '낭만서계'에서는 '어고잉 런웨이쇼'와 '어고잉 토크콘서트'가 진행됐다. '어고잉(AGONG)'은 서계동의 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해 만든 지역 대표 브랜드다. 지역의 신인 디자이너와 봉제 장인이 합작해 제작하는 여성복이다. 봉제산업 종사자가 많다는 특성을 살려 이 지역주민들이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를 구성한 셈이다. 뿐만 아니라 '청파언덕 골목 영화제' 열어 주민끼리 영화를 감상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회현동 축제인 '회현별곡'에서는 주민 바리스타들과 함께 커피를 만들어보는 핸드드립 바리스타 체험 행사가 진행됐다. 거점시설인

'계단집'에서 만요(근대가요) 메들리 공연도 열어 주민들이 어우러져 시간을 보냈다. 또 다른 거점시설 '검벽돌집'에서는 요리하는 PD로 유명한 이옥정PD의 강연과 '남촌주(酒)' 술빛기 시연행사도 열렸다. 남촌주와 어울리는 요리를 만들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쿡 토크쇼도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끌어냈다.



'2020 서울로 잇다 페스티벌'에서 리닝토코소 참가자들이 손기정 체육공원을 뛰기 전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 서울시

중림동 축제인 '중림만리'에서는 '시그니처 푸드쇼'가 눈길을 끌었다. 중림·만리동 맛집 셰프와 주민들이 모여 식당의 대표 메뉴를 함께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요리보다 활동적인 행사에 참여하길 원하는 주민들을 위해 '리닝토코소'도 열렸다. 중림동 명소인 손기정 체육공원에서 러닝에 대한 에피소드를 나누고 서울역 일대 달리기 좋은 공간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양한 즐길거리= 서울시는 예전보다 대면 활동이 줄어든 축제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온라인 행사도 기획했다. '주민 트롯 영상 경연대회'와 '온라인 댓글 이벤트'를 진행하기로 했다.

'주민 트롯 경연 영상 경연대회'는 서계·중림·회현동 주민들로부터 트롯트를 부르는 영상을 온라인 제출받고 실력을 뽐낸 주민을 선정해 시상하는 이벤트다. 서울로 운영사무국은 지난달 22일까지 영상을 접수받았다. 노래에 자신 있는 주민들이 영상을 보

내고 다른 주민들은 유튜브를 통해 이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온라인 댓글 이벤트에서는 차례로 업로드 되는 축제 영상에 댓글을 달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제공한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서울로 잇다 페스티벌은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도시재생 축제로 마중물 사업이 끝나도 자력재생의 동력을 이어나갈 불씨가 될 것"이라며 "코로나19의 난관 앞에 고심하며 만들어낸 이번 축제가 코로나에 지친 주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인석 기자 mystic@



거점시설 '청파언덕집'. 마을 카페로 이용하는 3층짜리 건물이다. 사진제공 서울시



골목 돌면 교육·문화체험 가득 거점시설 건립...새 삶을 잇다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사업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거점시설'이 지역주민들 간의 소통과 참여를 이끌고 있다. 연말에도 문화체험을 하고 싶은 주민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서계동에 있는 '빌라집'에서는 서울 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 1주년 행사가 열린다. 3일 전통주 빚기를 시작으로 다음 달 10일에는 전통주 시음행사를 진행하고 지난 1년 동안의 거점시설 운영 성과도 공유한다. '책방 브랜드 출시' 행사가 함께 열려 중림창고 책방 브랜드 개발과 출시로 1년의 성과와 미래 계획도 수립한다.

충정로역 인근에 있는 '중림창고'에서는 체험 활동과 전시 등 여러 행사가 열린다. 기호에 따라 주민들은 각각의 행사를 선택해 참여할 수 있다. 먼저 12일과 19일 라틴댄스를 배우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두 시간 동안 라틴댄스 '메랑게'를 배울 수 있다.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는 '도시재료 프로젝트'라는 내용으로 전시 행사가 열린다. 27~28일 이틀간 사진가, 작곡가와 함께하는 체험 행사도 진행된다. 지역주민들의 생각을 지역 예술가들이 사진·미술·음악 등 다양한 형태로 재구성하고 이를 공연과 전시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서계동에 있는 '은행나무집'에서는 다음 달 8일부터 18일까지 '도시재료 프로젝트' 전시가, 11~12일에는 같은 체험 행사가 주민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거점시설은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주민들의 공동이용 시설 확충과 문화체험 기회 향상을 목표로 개관한 곳이다. 대표적으로 창작가들이 함께 전시·판매·문화활동 복합공간인 '중림창고'와 라이브 공연과 전시가 이뤄지는 '은행나무집', 서울역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마을 카페 '청파언덕집', 공유부엌·공유서가 있는 '감나무집'이 있다. 이밖에 빌라집, 검벽돌집, 계단집, 회현사랑채도 있다.

각 공간은 재생의 매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일반주택과 건물을 매입해 마련했다. 공공건축가가 참여해 저층 구형지의 장점과 각 공간의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개조하거나 새로 지었다.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거점시설은 지역주민과 도시재생지원센터, 서울시의 협력으로 탄생한 '서울 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이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홍인석 기자 mystic@

중림동 '시그니처 푸드쇼' 가보나...

동네 셰프 총출동 맛과 소통의 향연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구 서계동의 한 '감나무집'은 행복한 소리들로 가득했다. 흰색외벽으로 된 집으로 촬영 장비들이 들어가고 안과 밖을 분주히 돌아다니던 사람들은 이내 '하하호호' 웃음을 지으며 대화를 나눴다. 근처를 지나던 사람들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한참동안 머무르며 이러한 광경을 지켜봤다.

한바탕 북새통을 이룬 이곳은 서계동 거점시설 '감나무집'이다. 이날은 중림·만리동 맛집 셰프가 주민들과 함께 식당의 대표 메뉴를 함께 만들어보는 '시그니처 푸드쇼'를 촬영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모였다. '2020 서울로 잇다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일인 만큼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지원센터 코디네이터가 나와 현장을 지켜봤다.

'감나무집'은 이 동네 도시재생을 상징하는 거점시설이다. 동네 주민들은 이곳에서 만나 소통하는 동시에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동네가 예전보다 활기가 돈다"고 입을 모았다.

중림동에 사는 문양덕(69) 씨는 "문만 닫고 살아 막혔는데 감나무집이 생기고 행사를 하나씩 궁글 궁글이



지난달 30일 서계동 거점시설 '감나무집'에서 한 셰프가 '시그니처 푸드쇼'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제공 서울시

생겨 오늘 참여하게 됐다"며 "내부 곳곳을 살핀 건 오늘이 처음인데 아늑하고 참 좋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촬영을 위해 46년 만에 화장했다며 설레인 기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곳 거점시설은 '자연'을 품은 도시를 주민에게 선사했다. 거점시설 한쪽에 조성된 작은 고구마밭과 풀들은 자연을 보고 자란 노인들에게 옛 기억을 소환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했다.

김상복(59) 씨는 "시골에서 재배하는 것처럼 작두콩차를 자연적으로 말려서 키우고 고구마도 재배할 수 있다"며 "고향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거점시설이 생기면서 동네 사람들 모

임도 늘어나고 얼굴도 익히면서 친근감이 부쩍 늘었다"고 덧붙였다.

거점시설에서 열리는 행사는 젊은 층에도 뜻깊다. 평소 교류할 일이 없는 어르신들을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 '이웃'을 사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날 열린 푸드쇼에는 동네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셰프가 참석해 가게뿐 아니라 지역 상권을 소개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만리동에서 수제 맥주 가게를 운영하는 김솔빈(35) 씨는 "처음이라 부담은 되지만 거리를 알리고 싶어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기회가 아니라면 주민을 직접 만날 기회가 없다"며 "동네 주민과 소통하고 알아갈 수 있는 자리"라며 밝게 웃었다. 홍인석 기자 mystic@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극단 라하프 단원들



극단 라하프 연출 이한길

극단 라하프 단원 한소라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라는 설 자리를 만듭니다

하나금융그룹 파워온임팩트

발달장애인들이 취업을 통해서
혼자만의 힘으로 설 수 있도록
자신만의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금융그룹은 일자리 만들기를 통해
발달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모두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발달장애인들의 강점을 살리는 지속 가능한
일job 자리를 만드는 사회 혁신 프로젝트입니다



휴먼에이드포스트 기자 홍석진

스프링샤인 도예가 이재영



스프링샤인 도예가 안윤주



소소한 소통 사원 이주형

QR코드를 찍어
[엄마의 졸업식]
Full 영상을 감상해보세요



한 명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제 빨리 가는 방법보다
안전하게 가는 방법을 고민하는 당신

비어있는 관객석 앞에서도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있는 당신

면접장으로 향할 수는 없어도
소중한 기회를 다음으로 미룰 수 없는 당신

여럿이 함께 있는 곳일수록
서로를 더 배려 하게 된 당신

달라진 시대,
한 명 한 명의 당신이 원하는
SK텔레콤은 다 다르기에

5천만 명의 매일을 위한
5천만 개의 SK텔레콤으로

한 명, 한 명의 초시대를 만듭니다 당신의 초시대를 만듭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기회를 열어주는
| 안·택트 면접 |

사회적 거리두기를
안전하게 도와주는
| Tmap 대중교통 |

공공장소의
안전을 지켜주는
| 비대면 케어로봇 |

인디 아티스트와
관객을 연결하는
| stage & FLO |